

제 188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나는 왜《秘録・金正日》을 쓰는가

강연자: 이상철(李相哲) (류코쿠대학 사회학부 교수)

중국 북경 중앙민족대학 졸업 후 일본 조치대학 대학원에서 신문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류코쿠대학 사회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상철 선생의 '나는 왜《秘録・金正日》을 쓰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9월 15일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선생은 유감스럽게도 '이상철'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인 기록에 써본 적이 없었다. 중국에서 자라면서는 '리씨양즈'로 불렸고, 일본에서 20년 정도 생활하면서는 '리소테츠'라는 이름을 썼다. 2012년 동아시아의 아이덴티티라는 책을 펴냈는데 세 개의 나라를 가슴 속에 품고 쓴 책으로, 저자는 세 나라의 요소를 33%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100%씩 300%를 가진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秘録・金正日》을 연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자라온 환경, 출생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중국에서 자라서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소학교를 다닐 때만해도 해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음악을 듣고 자랐는데,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노래가 현재에 와서 주목 받게 된 것은 김정일의 딸 김설송의 이름이 이 노래의 가사에서 따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그는 북한 연구를 위해 북한 유학을 하지 않았음에도 언제나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신문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대학에 객원연구원으로 나갔을 때, 함께 오피스를 쓰던 분으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북한자료를 접했던 일이었다. 2011년 3월 북한 연구를 진행하지 않을 당시 선생은 책을 한 권 썼는데, 김정은이 정권을 물려받으면 북한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다. 그는 클린턴 전대통령 주치의의 김정일 검진, CIA에서 발표한 김정일의 뇌 스캔 보고서, 그리고 한국의 보도기사 등의 세가지 자료를 근거로 '김정일이 3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실제로 그 해 12월에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하여 《秘録・金正日》을 연재하게 된 것이다. 이상철 교수는 북한이 오늘날까지 붕괴하지 않은 것은 김정일이 아주 정교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으로 보았으며, 김정일에 대한 그의 연구는 북한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서 김정일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김정일이라는 사람을 부분부분 조각 내어 연구한 결과는 많이 있으나, 전체로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특히 대학 졸업 이후의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를 입체적으로 보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김정일 관저에서 생활한 20년'이라는 책을 비롯하여 김정일과 같이 생활한 책들도 다수 존재하지만 김정일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기에 실려있는 많은 사실 가운데 어떤 것이 김정일이 진실을 말한 부분인지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일과 관련해서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간단한 사실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80년대 북한의 한 잡지에 항일여성투사가 쓴 글을 보면 하바로브스크에서 살 때 김일성을 만났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2013년에 그 잡지를 쓴 할머니의 따님을 만나

서 나눈 이야기와 김일성 회고록을 바탕으로 종합해본 결과, 정말 1942년 2월에 태어났을 경우
엄마 뱃속에 약 14개월 있던 것이 되므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일성이 소련에 들어간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 왔다. 북한의 '정사'에는 김정일이 항
일전쟁을 벌이던 중 민족의 성산이라 불리우는 백두산 기슭에서 태어났다고 기술되어있으나, 이
상철 선생은 실제로는 구 일본군의 공세에 몰려 구소련 극동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았다. 김
일성 역시 회고록에서 소련 극동부 사령부에 의해 소집된 하바로브스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소
련에 갔다고 썼는데, 이 회의는 194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속되었으므로 김정일이 태어
난 곳은 회의기간중인 41년 2월 16일 하바로브스크 시내의 한 병원이라는 것이다. (《秘錄·金正
日》 14화에 소개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탄생 비화와 관련하여 82년에 북한에서
발행된 '인민지도자 김정일 서기'에는 김정일과 그의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어렵פות이 백두산에
서 태어났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들을 보면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 (《秘錄·金正日》 17화에 소개되어 있음)

마지막으로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김일성의 비서실장의 일기를 예로 들었
는데, 7월 5일부터 김일성이 사망한 7월 8일까지의 일기가 아주 상세히 적혀있으나 이 자료를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철저히 경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일기가 공개된 이유는 국제
사회에서의 김정일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크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실
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일성이 급작스럽게 사망한 원
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특히 심장 쪽 주치의를 갑자기 루마니아를 유학한 젊은 의
사로 바꾼 것과 왜 당시 약을 챙기지 못했는지 등이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秘錄·金正
日》에 쓰여진 모든 것들은 역사적 고증을 거친 끝에 도달한 결론이지만, 연재물에는 그런 과정이
장황하게 설명될 수 없음을 덧붙이며 이상철 선생은 강연을 마무리했다.

질의응답

질문1. 여러 조사를 해 오시면서 김정일에 대해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상은 어떤 것인가요?

- ➔ 1985년 일본인 납치 실행범 신광수가 한국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된 후 진술한 바에 의하
면, 일본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의 여권을 가지고 신분 세탁을 했다. 이것 어떻게 해석
하느냐하면 김정일이란 사람이 아주 치밀하고 교활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
사면 김정일이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엄마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았는데, 엄마가 일찍 돌
아가시고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 의붓형제에 대한 질투심, 콤플렉스가 심했습니다. 출세의
큰 바탕에는 예술적 능력이 있었구요. 납치를 자행하는 시기에 스파이 영화 많이 찍었는
데, 영화 같은 세계를 현실에 연출하는 치밀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질문2. 일본에서 북한 연구가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의 문제라든가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 ➔ 일본에서의 북한 연구를 보면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깎아내리고 나쁜 부분만 보려는 학

자들, 공정하게 보려는 학자들, 그리고 북한의 본질을 무시하고 아주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학자들 이렇게 세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란 점은 북한을 상식적으로 보면, 김정일이 사람을 많이 죽였죠. 보통사람의 상식으로 봐도 이 사람을 좋다고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김정일과 북한을 잘 모른다고 하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파키스탄 이라크와 같이 바라보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질문3. 북한이라 함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태어난 시기나 장소조차 불확실하듯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보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 제가 사용하는 것도 감춰진 자료가 아니고 상당 부분 공개된 자료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는데, 다른 자료와 모아서 연계시키다 보면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참고로 새로 나온 정보보다 이미 나온 정보가 더 신빙성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질문4. '김정일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듯이 현재 시스템은 대체로 김정일 체제하에 형성된 것으로 그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큰 특징에는 무엇이 있나요?

➔ 김정일이 대학 졸업 후 제일 처음으로 취직한 곳이 노동당 조직 지도부였습니다. 원래 이 조직 자체는 힘있는 조직이 아닌데 김정일이 들어간 이후부터 권력이 집중되었고, 문제가 있다 하면 검열과가 검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적으로 하나하나 개편해갔던 것이죠.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김정일 생각에는 수령 밑에 통일 전선부 밑에 한국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10대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를 예로 들면 수령님의 지시는 절대적이며 해석도 하지 말고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의 김정일이 만든 시스템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정교하지만, 이것 엄격하게 적용하면 할수록 경제에는 나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문5. 현재의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체제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일은 태어나서부터 빨치산 속에서 컸어요. 후지모토 겐지의 수기에 의하면 김정은과 7살 때 처음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만, 악수하려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안줍니다. 김정일한테는 꾸지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아무한테도 터치 받지 않고 자랐을 겁니다. 김정일의 경우에는 인간관계로 맺어진, 충고를 해줄 최측근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김정은은 주변에서 조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자기가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이죠, 출세해봤자 죽을 수도 있겠고요.